

중대한 미션 #4: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5. 내가 개발할 제품/서비스에 대한 설명

바이러스의 공포 속에서 가정폭력이라는 또 다른 공포를 경험하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들, 특히 사회적 혼란이 심한 시국에 주변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하는 (가정환경과 같은 요인으로 핸드폰을 소지할 수 없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통신 수단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가스라이팅 때문에 가정폭력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가정폭력에 대해 찾아볼 수 있는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는 아동들을 위해서, 정부/시민단체 측에서 주변 어른들이 개입하는 행위를 보상 및 장려하는 캠페인을 열고, 이와 같은 캠페인에서 (주변 어른들이 가정폭력 피해아동으로 의심되는 아이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소통수단을 배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이러한 소통수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피해아동의 부모가 알게 된다면, 장치소지를 사전에 차단해버리거나 아이에게 협박이 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치가 있다는 것을 아이들만 알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의심을 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편하게 소지하고 다닐 수 있는 작고 가벼운 인형 형태의 소통수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인형의 배(ex. 필요 시 더 쉽게 누를 수 있는 다른 신체부위 설정 가능)를 누르면 자동으로 현 위치정보를 동반한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는 기능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부모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씩 다른 형태의 인형(ex. 강아지, 햄스터, 고슴도치 등)을 배포하여 마치 개인 소지품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이와 같은 소통수단을 배포할 때, "엄마/아빠가 또 너를 아프게 하면 xx이의 배를 눌러줘. 그러면 우리가 도와주러 갈게. xx이에 대한 얘기는 절대 아무한테도 하면 안돼."와 같은 이야기를 하며 배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소통수단은 사생활 침해와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는 있지만,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생활에 대한 개입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제품/서비스에 대한 프로토타입 (그림, 사진 등)



실제 [아마존에서 판매가 이루어졌던 제품](#)입니다. 인형을 누르면 부모에게 자동으로 메시지가 가는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이와 부모가 소통할 수 있는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나, 가정폭력 신고에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